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¹³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¹⁴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¹⁵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¹⁶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았지 못하거늘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¹⁸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¹⁹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²⁰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²¹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²²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²³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²⁴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눅24:13-24)

기억의 지식이 신앙은 아니다. 신앙은 신앙에 관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인정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며, 사람 안에 있는 인애를 통해 주님 홀로 하시는 일이다. (천국의 비밀 1162, 이순철 역) *It may be seen from this that memory-knowledge is not faith. But faith is the acknowledgment of the things which are of faith; and this acknowledgment is by no means external, but internal, and is the working of the Lord alone through the charity in a man. (AC.1162)*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새 교회 가르침인 스페덴보리 저, ‘천국의 비밀’(Arcana Coelestia, 라틴, 天界秘義)에서는, 천국은 주님의 신성인 선(*good*)과 진리(*truth*)로 이루어지며, 종류별로는 천적(天的, *celestial*), 영적(靈的, *spiritual*), 자연적(自然的, *natural*)인 세 천국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천적 천국과 영적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천국 모든 사회는 천적 천사와 영적 천사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천적 천사와 영적 천사 간 차이는, 천적 천사는 진리보다는 선을 더 사랑하는 천사이고, 영적 천사는 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리를 더 사랑하는 천사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성 중 선에 더 반응하는 천사는 천적 천사, 진리에 더 반응하는 천사는 영적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두 가지 성향의 천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과 통하는 지상의 교회도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선에 대한 애정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차이, 이 비밀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과 목회,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말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놀라움 반, 기쁨 반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그 관련 본문입니다.

¹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²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³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⁴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⁵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⁶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⁷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⁸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⁹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¹⁰(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눅24:1-10)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여자는 보통 진리보다는 선에 대한 애정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 안의 선과 진리 중, 진리가 아니라 선이나 인애(仁愛, *charity*) 안으로 오시는 것과 관련, ‘천국의 비밀’ 1162번 글은, ‘주님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인애 가운데로 오셔서 그의 신앙을 내적으로 만드신다.’ (*and this acknowledgment is by no means external, but internal, and is the working of the Lord alone through the charity in a man.*)고 합니다. 또 1226번 글은, ‘참된 지성과 지식은 사람의 인애를 통해 주님이 생산하는 지식이다.’ (*Hence comes true intelligence, and hence comes true memory-knowledge, and hence comes true knowledge, which are all sons of charity, that is, sons of the Lord through charity.*)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로부터

주님이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 알 수 있지요. 여자들은 진리를 생각하기보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 즉 체어리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 그들에게 먼저 오셔서 그들 안의 죽은 지식 속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서 살아난 진리의 지식이 바로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 그러니까 신앙 지식을 갖고만 있던 우리가 드디어 실천에 옮기고, 이후 실천하는 신앙인, 선을 행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들 내면의, 생명 없는 진리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엠마오는 샘(*spring*)이라는 뜻이고, 샘의 영적 의미는 참된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진리란 어떤 걸까요?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 그걸 실천하지는 않는,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진리를 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합니다.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리로 자신을 포장하기를 즐기는 사람, 즉 박학다식하고 달변 및 글재주도 있어 청중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속 사람이, 정작 본인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행하려 해도 뜻대로 잘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그들에 대해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한글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를 걸어갔다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ree score*, 즉 이십 리를 세 번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코어(*score*)는 스물, 이십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 이 숫자 2는 진리와 선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십 리를 세 번 걸어 엠마오로 가는 건 신앙인들이 한편으로는 진리를 배우고 한편으로는 실천하려고 애쓰

면서 점차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는 참된 진리를 뜻하고, 숫자 3은 완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는,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앞 절의 말씀에서 짐작하셨을 터이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두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신앙인에게 있는 두 가지 생명, 즉 이해하는 능력(*understanding*)과 의지(*will*)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둘은 신앙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지요. 거듭나는 동안 이 이해하는 능력과 의지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인들과 같이 진리를 배우기보다 행하는 데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살아있는 진리의 인도를 받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사람이 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리라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진정한 지혜는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진정한 지혜를 갈구할 때 어느 날 불쑥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¹⁶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눈을 가리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이나 교만, 분노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생활고나 질병의 고통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좀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 서두에 세 천국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천국은 그 지혜와 영광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즉 천적 천국은 영적 천국에 비해 그 지혜가 수천수만 배 뛰어나고, 영적

천국은 자연적 천국에 비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자연적 천국에 있는 천사가 마음에 원해서 영적 천국을 가보고 싶어 하면 주님의 허락으로 잠시 가볼 수 있게 되는데, 정작 가보면 이상한 게, 분명 거기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들과 사람들, 곧 천사들이 가득함에도 정작 본인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내면이 영적 천국을 볼 수 있게 열리지를 앓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 정작 이 엠마오 두 제자의 내면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말씀에서 ‘걷는 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피하는 것’은 자기 안에 진리와 선이 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거듭남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자기에게 진정한 지혜가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공허함과 슬픔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나 자존심, 오랜 습관 같은 것, 마치 분신과 같은 것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것을 떠나보낸 자리에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 없음을 깨닫고 슬퍼하는 게 바로 지혜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대답합니다. 18절로 24절입니다.

¹⁸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¹⁹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²⁰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²¹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²²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²³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²⁴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두 사람 중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운을 뗀 후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글로바는,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 곧 나사렛 예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자기들은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알았는데, 이분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 그리고 자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들과 함께한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더라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기들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는 못 보았다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글로바가 하는 말은 엠마오로 가는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한 말을 그 속뜻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선이 있는 진리이며, 그러므로 능력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한창 자라나고 있는 그 진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완전한 진리가 죽고 완전한 진리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때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진리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살아날 때가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 내 안에서 진리이신 그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즉,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악과 거짓을 뜻하고, 주님이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자이며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진실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지 그날만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어찌면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시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눈이 가리어져 주님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 이 엠마오 두 제자 에피소드는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명멸했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동안 많은 교회가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새 교회의 진리를 처음 알았을 때는 태고교회처럼 순진

눅24:13-24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교회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고대교회와 같이 진리에 밝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점점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싸움에서 넘어져 일어설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을 죽인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신성한 진리로 우리 안에 마지막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교회이며, 슬픔에 눈물짓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새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호산나를 부르며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새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

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렘 30:10)

아멘

2023-05-07(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2025-01-12(D1)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